



STATE OF NEW YORK | EXECUTIVE CHAMBER

ANDREW M. CUOMO | GOVERNOR

즉시 배포용: 2012년 11월 12일

CUOMO 주지사, 허리케인 SANDY 피해로부터 뉴욕 주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24/7 보험 재난 핫라인 운영을 발표하다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금융서비스부 재난 핫라인이 하루 24시간, 주 7일 운영되어 허리케인 Sandy의 피해로부터 뉴욕 주민들이 재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핫라인(800-339-1759)은 보험 관련 폭풍 문의에 답변하고 소비자들의 민원 접수를 도와드릴 것입니다. 앞서, 핫라인은 허리케인 Sandy 발생 직후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었습니다.

“뉴욕 주민들이 폭풍 피해로부터 재건할 수 있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Cuomo 주지사가 말했습니다. “이 핫라인은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폭풍 관련 보험 문제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지원해드릴 것입니다.”

금융서비스부 부장인 Benjamin M. Lawsky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리케인 Sandy와 같은 재난으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입니다. 금융서비스부는 보험회사들의 대응방식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필요할 땐 언제든지 주택보유자들을 돕기 위해 나설 것입니다.”

또한 금융서비스부는 피해지역에 모바일 명령 센터를 설치해 소비자들의 보험 관련 문의사항과 애로사항들을 돕고 많은 폭풍 피해 지역들에게 재난 지원 센터에 인력을 제공하는 일을 돕고 있습니다. 핫라인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은 직접적인 지원을 얻을 수 있도록 집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재난 지원 센터로 연결해드리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와의 분쟁을 해결할 수 없는 주택 소유자는 <http://www.dfs.ny.gov/consumer/fileacomplaint.htm>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폭풍 발행 후 Cuomo 주지사는 주택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취했습니다.

- 주지사는 이 폭풍이 뉴욕에 도달했을 때 허리케인급 강풍을 몰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택보유자의 보험으로 적용 받는 폭풍 Sandy로 인한 파손에는 허리케인 본인 부담금(hurricane deductibles)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Korean

- 주지사는 금융서비스부에게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제거해야 할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분실 및 손실물의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한 주택보유자의 서류를 보험회사에서 접수하게 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청구를 처리할 수 있기 전에 먼저 현장 조사를 요구합니다.
- 또한 주정부는 보험료 미납을 포함한 어떤 이유로 폭풍 피해 지역 주택보유자 및 소규모 업소 보유자들의 보험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데 대해 30일의 모라토리움을 부과하였습니다.

DFS는 재산 손실을 입은 주택 소유자들이 즉시 그리고 피해 발생 후 가능한 한 속히 보험회사에 보험 청구서를 제출할 것을 촉구합니다.

주택 소유자들은 홍수 피해는 FEMA가 시행하는 연방 프로그램인 홍수 보험에 의해서만 커버되도 알아야 합니다. 홍수 보험에 들었고 홍수 피해를 본 주택 소유자들은 그 보험을 통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가시면 더 많은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